



정조국, 이란 골문 뚫어라!

대표선수 치출 문제로 한바탕 흥역을 치르고 이란으로 떠난 '베어백호'가 15일(한국시간 오후 9시)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해외파 선수들이 총동원된 이란을 상대로 2007 아시안컵 최종예선 B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한국과 이란이 이미 아시안컵 본선진출을 이미 확정지은 터라 조 1위의 주인공을 결정하기 위한 자존심 싸움의 의미가 더 크다.

베어백호, 오늘 아시안컵 B조 최종예선

4-3-3 전술...최성국·이종민 좌우 포진

현재 한국과 이란은 B조에서 나란히 3승2무(승점 11)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앞선 한국(15골3실·+12)이 이란(10골2실·+8)을 누르고 조 1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베어백호'는 대표팀 차출문제로 지난 13일 이란 출국 8시간 전에야 원정명단 20명을 확정하는 촌극을 벌였을 뿐 아니라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대표팀 위주로 멤버를 짠 뒤 채 5일도 되지 않은 짧은 조직훈련만 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보다는 아시안게임 준비가 우선=베어백 감독은 아시안게임 이란 원정을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전지훈련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이번 20명의 선수 가운데 15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에 포함돼 있다.

베어백 감독은 아시안게임 축구 첫 경기인 방글라데시전(28일)이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만큼 이란전이 끝나면 곧바로 두바이로 넘어가 전지훈련을 치른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걸림돌이 있다. J-리그인 김진규(이와타)와 러시아 리그의 김동진, 이호(이상 제니트), 김동현(루빈 카잔)은 이란전을 끝내고 다시 소속팀으로 복귀해 주

말 경기를 치르게 된다.

또 팬피언결정전을 위해 김두현, 김용태(이상 성남), 조원희(수원) 등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베어백호는 8명이 당분간 두바이 전지훈련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나마 올림픽대표팀 한일전을 마치고 박주영, 백지훈(이상 서울), 오장은(대구), 정성룡(포항)이 합류할 예정이지만 23일 예정된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평가전에는 단 12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란전 베스트는=베어백 감독은 4-3-3 전술을 기본으로 이란과 맞설 태세다. 이란 원정에 나선 대표팀의 면모를 보면 공격력에서는 기존 대표팀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정조국(서울)과 김동현의 장신 스트라이커를 비롯해 이천수, 최성국, 이종민(이상 울산), 염기훈(전북) 등 발 빠른 측면 요원이 포진했다.

미드필더에는 이호(제니트)와 김정우(나고야) 등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조용을 맡을 수 있는 김두현(수원)이 자리잡고 있다. 수비에 또 기존에 대표팀에서 발을 댄 김동진(제니트)과 김진규(이와타)가 있는



(정 조국)

등 베어백 감독으로선 4-3-3 전술을 운영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베어백 감독은 정조국을 왼쪽으로 좌우에 최성국과 이종민(또는 염기훈)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계는 지금 축구전쟁 중

11월중 A매치 66경기

독일월드컵의 해인 2006년 막바지, 지구촌이 다시 한번 축구 열기에 휩싸인다.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보름 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66경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다. FIFA는 이번 대표팀간 경기를 끝으로 올해 A매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친선평가전이 31경기로 가장 많고 2007 아시안컵 예선 최종전 11경기, 2007 북중미 골드컵 예선 9경기, 2006 동남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경기,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8) 예선 7경기 등이다.

2007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은 펠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15일 이란과 예선 최종전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미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낸 일본은 15일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아시안컵 예선 5차전에서 14개 팀이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된 가운데 D조의 쿠웨이트와 바레인, F조의 우즈베키스탄과 홍콩이 마지막 티켓 2장을 놓고 최종 예선에 임한다.

하지만 축구팬의 관심은 아무래도 유럽, 남미의 축구 강호들이 펼쳐지는 평가전이나 유로 2008 예선에 쏠려 있다.

최대 '빅카드'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토탈사커 대명사' 네덜란드의 평가전이다. 경기는 16일 오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데 양팀 감독은 선수들의 줄부상에 시름하고 있다.



15일(수)

▲제16 대륙간컵 야구대회(한국-네덜란드)(13 : 50·KBSN SPORTS)

▲FIVB 세계 여자배구 선수권(브라질-세르비아 몬테네그로)(13 : 50·Xports), (이탈리아-러시아)(15 : 50·Xports)

▲프로농구(삼성-KT&G)(18 : 50·SBS 스포츠, Xports)

▲아시안컵 축구예선(한국-이란)(20 : 45·KBC)



“놓쳐선 안돼”

1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미 프로풋볼 팀과 베어 버커니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에서 양팀 선수가 볼을 다투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 실사단, 광양 방문

내년대회 개최여부 최종 점검

2007년 한국에서 열린 17세 이하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실사단이 대회 유치 신청 도시 가운데 하나인 광양시를 방문해 유치 가능 여부를 최종 점검한다.

객 워너 FIFA 부회장 및 북중미 대륙연맹 회장 등 8명의 실사단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등 20명은 오는 19일 광양시를 방문한다.

이들은 시청 상황실에서 유치 준비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광양제철소내 전남 드래곤즈 전용구장, 숙박시설, 연습구장인 드래곤즈 연습구장, 중동축구장,

광양공설운동장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광양시는 이번 실사단 방문시 지역민의 축구 열기와 함께 1924년 전곡 최초의 축구대회가 열렸다는 역사상, 10개의 전용구장을 보유한 축구 인프라 등을 장점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대회 주최측은 유치 신청도시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마친 뒤 이달 말에 개최도시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8월18일부터 9월9일까지 치러지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는 24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출전해 모두 52경기를 치르게 되며 국내 6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심영성(제주)·신영록(수원)·조수혁(건국대)

‘미래의 아시아 스타 11’

■ AFC 선정

19세 이하 청소년대표팀 공격수 심영성(제주)과 신영록(수원), 골키퍼 조수혁(건국대)이 아시아 축구를 이끌어 미래의 스타로 뽑혔다. 30년 만에 북한을 아시아청소년(U-19)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이끈 주장 김금일은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인도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 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미래의 아시아 스타들’ 11명을 선정, 발표했다. 일종의 대회 ‘베스트 11’인 셈이다. 미래의 아시아 스타들 중에는 한국이 비록 대회 3위에 그쳤지



〈심영성〉

〈신영록〉

〈조수혁〉

만 득점왕(5골)에 오른 심영성과 신영록, 조수혁 등 세 명의 이름을 올려 일본과 함께 최다 선수를 배출했다.

AFC 홈페이지는 심영성을 ‘한국 공격진의 대들보’라고 소개하며 ‘공격 파트너 신영록과 최상의 조화를 이뤄냈고, 골 결정력과 상대 수비의 압박을 뚫고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경기를 읽는 요령이 뛰어나며 5골을 터트려 대회 최다 득점 선수가 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래불안? **한의사가 되시면 해결됩니다!**

30수업씩 대학 및 직장인 환영

사우스 베이 한의과 대학

www.southbay.co.kr

광주·임학설명의 한내

11월 12일(수) 11월 13일(목)

4월 10일(수) 4월 11일(목)

☎ 010-9900-3111 010-9900-3112

☎ 010-9900-3113 010-9900-3114

☎ 010-9900-3115 010-9900-3116

광주지역 유일한 **상설 할인매장**

Discount

50% ~ 40%

최대 50% 할인

점심 푸스콘 패션 아울렛 상설 할인매장

010-2-681-6102

OLZEN 후